

‘요나서’

1. 저자 및 기록 연대

- 본서의 저자 -> 선지자 ‘요나’ 라는 사실에 큰 이견이 없음.
 - 참고로 요나서 자체에는 요나가 저자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구절은 없음.
 - 그러나 요나 자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기 경험담이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음!!
 - ‘요나’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

- 본서의 기록 연대
 - 어떤 학자들은 ‘요나’를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요나’는 여로보암 2 세의 통치전이나 통치 시작 직후에 활동한 선지자!
 - 열왕기하 14 장 25 절의 증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해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 참고로 여로보암 2 세 통치 기간 동안의 앗수르의 왕들은 아슈르단-니라리 3 세, 살만에셀 4 세, 아슈르단 3 세, 아슈르-니라리 5 세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슈르단-니라리 3 세의 통치기간에 특이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다는 기록이 전해짐!!
 - 이 무렵부터 앗수르에서 ‘유일신 혹은 최고의 신’ 사상이 시작됨!
 - 학자들은 이런 일신론적 개혁이 선지자 요나의 니느웨 선교사역 때문이라 주장!!

2. 본서의 중심 주제와 내용, 핵심구절

- 요나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①. 이 책은 비유적 해석을 따라야 한다!
 - 요나서의 문체는 선지서 중에 유일한 이야기체로 기록! + 내용 = 전설적, 신화적, 풍유적!!
 - ②.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기에 역사적 해석을 따라야 한다.
 - 요나는 역사적 인물 (왕하 14:25).
 -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역사적인 책으로 생각 (요세푸스, 고대사 ix. 10.1, 2)
 - 니느웨 사람들의 개종은 앗수르의 종교개혁 역사와 시대적으로 일치함.
 - 요나서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들(마 12:39-42, 눅 11:29-32)은 예수님도 이 책을 역사적인 책으로 여기셨다는 증거.
 - 지금도 ‘니느웨’에 요나의 무덤이 있고, 지역 주민 25%가 시리아 정교회에 속한 기독교인!

- 한 권으로 읽는 소선지에서의 ‘요나’서의 위치와 역할
 - 우선 ‘요나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선지자 요나’, ‘물고기 사건의 역사적 사실 관계’, 혹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파송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

-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 ①. 하나님의 존재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야만 한다는 것과
 - ②.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란 사실과
 - ③.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 당시 종교적 안일함과 교만,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을 징죄하신 것!!
=> 특별히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요나의 외침에 응답한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드시며 교만하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음.(마 12:41, 눅 11:32).

▪ **중심 내용: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됨.**

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1 장)

- a) 1-10 절: 요나의 거절과 폭풍
- b) 11-17 절: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킴

✓ 1장에서 주목할 것은 니느웨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을 충분히 배려하신 하나님!!

②. 요나의 기도와 구출 (2 장)

- ✓ 2장에서 주목할 것은 선지자 요나를 강권하실 분만 아니라, 큰 물고기를 통해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 ✓ 결국 물고기 배속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는 결심을 함!!

③. 요나의 전도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3 장)

- ✓ 3장에서 주목할 것은 지극히 적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요나의 성공!
- ✓ 이것은 인간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강조해서 보여 준 것!!

④. 요나의 성냄과 하나님의 꾸짖으심 (4 장)

- a) 1-5 절: 요나의 불평과 성냄
- b) 6-11 절: 마른 박넙쿨로 요나를 꾸짖으시며 교훈하시는 하나님

- ✓ 4장에서 주목할 것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불평했다는 것!
- ✓ 이를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심.

▪ ‘요나서’의 핵심구절 -> 4장 2절!

“...,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 **요나 1 장,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망치는 요나!’**

1. 요나를 불러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1-3 절)

1) 하나님은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 절)

- 앞에서 잠깐 생각했지만, ‘아밋대’의 아들이란 표현은 ‘요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란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해 줌!

2)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2 절)

- ‘…,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
- Why? => ‘…,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곧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들(우상숭배, 살인, 침략전쟁, etc)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에 달했기에 때문!
-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

✓ 참고로 니느웨 성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이 위치한 성. 이곳은 농업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로서 고대 앗수르의 통치자들이 주로 거주했고, 산헤립 왕은 이곳을 제국의 수도로 삼고 통치함.(B.C. 705-681)

✓ 아무튼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됨!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

3) 그럼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3 절)

- 3 절 주목!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 여기서 먼저 주목할 두 단어 -> 바로 ‘그러나! +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①. 우선 ‘그러나’란 한마디 단어 자체가 이미 사명을 거절한 요나의 불순종을 설명!!

- 참고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_____으로 답해야 함!!

- 고린도후서 1 장 20 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②.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그의 얼굴은 볼 수도 없으며, 혹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날에는 죽는다(출 33:20)고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고, 다윗은 ‘여호와와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노래했음!

- 그럼 ‘여호와와 얼굴’은 무엇을 의미할까?

a) 야곱의 예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여 싸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보전되었던 그 장소를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이라 부름! (창 32:30)

=> 곧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이루는 장소 곧 여호와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

b) 다윗의 예

다윗은 시편 105 편 4 절에서 "그(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43 편 7 절에서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노래함!

=> 곧 다윗의 예를 통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한 표현!

=> 곧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선언!!

- 따라서 당시 ‘요나’가 ‘여호와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다는 것은 a)의 의미대로 여호와와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이상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쉽게 말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버렸다거나 떠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함!)

- 참고로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도시로써 ‘다시스’로 가기 위해선 ‘옘바’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야 함!

따라서 당시 ‘요나’는 기왕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아예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니느웨’와는 정반대 도시인 ‘다시스’까지 가기로 결심한 것!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자신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실 것이라 판단한 것!

✓ 그럼 왜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을까?

-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앗수르의 성읍이었기에,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고, 나아가 혹시라도 저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애초부터 바라지 않았던 것! (이것은 4 장에서 확인)

2. 도망가는 요나를 큰 폭풍으로 막으신 하나님 (4-10 절)

1) 하나님은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자 큰 폭풍이 일으키시며 요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4 절)

-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며 인간을 깨우치시기 위해 자연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
-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향할 때,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길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분!!

2) 그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질 상황에 처했을 때, ‘요나’와 선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5-10 절)

①. 선원들의 반응

- a) 두려워 떨며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며 간구!
 - 인간의 악함을 깨닫고 우상을 찾음!!
- b)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짐!
 -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 c)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음!
 - 이것은 재앙의 원인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려던 당시 선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걸리도록 하시려 한 하나님의 섭리(역사) 때문!!

②. 요나의 반응

- a)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자고 있었음!!
 - 선원들이 두려워 떨 만큼 큰 폭풍이 왔는데도 그가 자고 있다는 것은 당시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
- b) 이때 주목할 것!! -> 선장이 요나를 책망했다는 것!!
 - 6 절, “...,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써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방인(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 책망 받고 있음!!
 -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책망 받을 수밖에 없음!!
 - 그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 미움과 핍박, 환난을 받음!!
 -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

③. 제비뽑기를 통해 선택된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 a)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 (9 절)
 -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 곧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됨을 경험!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
- b)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죄인됨을 시인함! (10 절)
 - 자신이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것을 고백!
 - 그러자 선원들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는가?’ 제차 지적 혹은 책망함!!

3. 바다에 던져진 요나 (11-17 절)

1) 바다를 잠재울 방법을 묻는 선원들에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답했습니다. (11-12 절)

- 그럼 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을까?
 - 12 절 주목! “...,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제 모든 것(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결단!

2) 그럼 선원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졌나요? Yes or No

-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시도함!
 - 곧 폭풍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바다에 던질 수는 없었던 것!
 - 이와 같은 선원들의 궁핍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이 싫어 도망친 ‘요나’와 대조됨!!
- 그런데 이처럼 선원들이 아무리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노력해도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폭풍은 더욱 더 심해졌다는 것!!
 -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하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뿐임!

3)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던진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간구와 함께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14-16 절)

- 특별히 14 절의 선원들의 고백을 주목!

“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 이 말은 곧 ‘요나’를 던지게 된 것, 곧 큰 폭풍이 오고, ‘요나’가 제비뽑기를 통해 뽑혔고, 그 결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바다에 빠지기를 결단한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고백한 것!!
 - 그러므로 ‘요나’를 던지는 행위 때문에 자신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함!!
-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이 그치고 바다는 잠잠해졌다는 것!
 - 이것은 곧 폭풍의 원인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신 것이며, 또한 자신들을 벌하지 말라는 선원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 그래서 당시 그 배를 탔던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고 기록! => 참고 ‘서원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약속’했다는 것!

4) 그럼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17 절)

- 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
 - ‘큰 물고기’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바다 속에 ‘큰 괴물’이란 말..
 - 사람들은 이것을 고래 종류의 ‘큰 물고기’로 추측 But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름!!
- ②.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삼 일을 지냄!
 - 이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현상!
 -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불순종한 요나의 생명을 바다 속 깊은 곳에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셨다는 것!
 - 참고로 이 사건은 이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일로도 해석됨!

- ❖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
- ❖ 중보기도 나눔